

# 광주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판로 개척 '활발'

市, 올 716곳 1523개 제품 지원 영상콘텐츠 촬영스튜디오 구축 홍보·라이브커머스 무료 진행 '소담스퀘어 통해 디지털 전환'

#1. 남부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반건조 아귀포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A업체는 지난해 롯데온 할인쿠폰 프로모션을 무료로 지원받아 매출액이 5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200% 넘게 상승했다.

첨단지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B업체는 지난 9월 소담스퀘어 지원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 위메프

오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통해 한 달 동안 34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2. 뜨개 DIY 세트 등을 판매하고 있는 북구의 C업체는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라이브커머스 지원을 통해 평소 한 달 치의 온라인 판매량을 방송 1시간 만에 판매했다. 1913송정역시장에서 고로케를 판매하고 있는 D업체 역시 라이브커머스 1시간 방송을 통해 준비한 70세트 고로케 수량을 모두 완판한 데 이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로케 부문' 구매 1위 등의 성공을 거뒀다.

광주시에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광주'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716개사 1523개 제품(11월 말 기준)의 판로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강화 교육(159개사) △상세페이지 제작(25개사) △라이브커머스·V커머스 제작(190개사) △온라인쇼핑몰 입점(254개사) △TV광고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58개사) △디지털전환 활동 등(30개사)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개인 프로필 촬영, 제품 이미지 촬영 및 홍보영상 제작,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1600회 이상 이용했다.

'소담스퀘어 광주'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BC광주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모사업에 KBC광주방송과 함께 선정돼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광주'를 구축했다.

소상공인은 소담스퀘어에 구축된 디지털콘텐츠 제작·제품 촬영 스튜디오, 교육 및 편집실, 미팅라운지 등을 활용해 제품 이미지 촬영, 라이브커머스 등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024년 1월부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소담스퀘어 광주'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2-369-9512)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최근 비대면·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싶어도 장비·시설 등 활용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소담스퀘어 광주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광주은행, 개인스마트뱅킹 '광주 와(Wa)뱅크' 출시

지역특화·생활밀착서비스 제공

광주은행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개인 스마트뱅킹을 개편한 '광주 와(Wa)뱅크'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누구에게나 쉬운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탄생한 '광주 와(WA)뱅크'는 고객공모를 통해 네이밍을 선정했으며, '고객에게 놀라운 서비스로 한걸음 더 다가감'을 자아내며 고객들을 모이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 이상 복잡하고 딱딱한 금융앱이 아닌 '비금융생활서비스' 강조로 이용자에게 재미와 정보, 그리고 생활혜택을 제공해 이용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광주·전남의 맛집과 여행명소, 지역특산품은 물론이고 배달음식 주문, 해외여행 예약, 생활보험 가입, 게임이나 오늘의 운세 등 재미요소가 가미됐으며, 특히 배달음식 주문과 광주상생카드를 연동해 이용자의 정보탐색 시간과 비용절감을 동반한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보기 기능 및 건강 관련 정보를 탑재한 '건강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 AI사업단 "의료 진단 데이터-AI 기술 접목"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협약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과 AI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을 비롯해 김용진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이형철 서울대병원 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AI를 의료 현장에 적용해 의료 진단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활용도를 높여 양 기관이 AI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사업 협력과 기술 교류를 통한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등 제반시설 지원 △신규 사업 기획 및 과제 발굴 연계 협력, 과제 공동 수행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협력 △기술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 기술 확산을 위한

며, 여기에 연동해 가입한 보험정보는 물론이고 여행자 보험이나 레저보험 등 필요하지만 미처 가입하지 못했던 생활보험 가입도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단순히 콘텐츠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개인화에 초점을 둔 '메인화면'도 주목할 만하다. 자주 쓰는 계좌와 카드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설정 가능토록 해 접근성과 사용성을 개선했으며, 보유 자산별 현황과 금융일정, 신용점수, 소비패턴분석 등을 한 번에 보여줘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기대된다. 또한 예전부터 제공됐던 신용점수율리기, 실손보험청구, 머니TIP 등도 지속 제공해 연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12월 중 새롭게 오픈할 '상품몰'은 광주은행의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에 가입한 다른 은행 예금상품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기존에 가입한 상품의 금리, 만기정보 등을 참고할 수 있어 이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지원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I사업단의 AI데이터센터 컴퓨터자원을 제공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축적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AI 기술과 접목해 AI 의료 진단 데이터 활용과 국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하 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병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의료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병원, 헬스케어 산업과 AI 융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 보해양조, 장애학생 특성화 해양환경 보호활동 '성료'

목포대와 연계 한 달간 진행 비장애·장애학생 플로깅 참여

보해양조가 목포대와 연계한 장애학생 특성화 해양환경 보호 활동 '함께해, 씨유'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3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20명의 대학생은 지난 10월부터 한 달 간 무안과 목포 해안로 일대에서 해양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활동을 펼쳤다. 또 수거된 해양쓰레기로 보해양조가 운영하는 '보해소주 스몰액션 스토어'에서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해양환경 보호 메시지를 담은 굿즈와 패넬을 제작하고, 대학 교내에 이를 전시하거나 플라마켓을 운영하는 등 지역 해양환경 보호 확산에 앞장섰다.

이번 활동은 장애 학생 특성화 프로그램이지만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학생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해안가 플로깅은 장애 학생에게 위험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비장애학생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했다.

지난 11월에는 목포 보해소주 스몰액션 스토어에서 프로그램 수료식이 열렸다. 한 달간 진행한 모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보해양조가 인증한 수료증이,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를 통해 플로깅 교육을 받고 해양 정화 활동에 참여한



수료증과 플로깅 가이드 인증서를 받은 목포대 주정민(환경교육과, 18학번)군(왼쪽)과 사회적 기업 스몰액션 정태영 대표 **보해양조 제공**

학생들에게는 '플로깅 가이드 인증서'가 주어졌다. 이를 받은 학생들은 향후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수료증과 플로깅 가이드 인증서를 모두 받은 목포대 주정민(환경교육과)군은 "처음에는 자의적이 아닌 대학 강의 과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실제로 플로깅을 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이후 꾸준히 참여했

다"며 "특히 플로깅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편견을 가졌던 장애학생과 함께한 프로그램이라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기업 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플로깅 체합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해소주 스몰액션 캠페인을 통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최권범 기자**

## 주말·공휴일도 여행사에 '항공권 취소' 가능

공정위, 여행사 약관 시정 취소수수료 미부과 조치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항공사의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 처리 불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통해 시정됐다.

공정위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등 국내 주요 8개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

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576건으로 이중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피해가 63.8%(164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한국어 상담 등 장점에도 △당일 취소 불가 조항 △24시간 내 취소 불가 조항 △그 외 영업시간 외 취소불가 조항 △환급정산금을 지연해 반환하는 조항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국내 8개 주요 여행사 모두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지만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 주요 8개 여행사 모두 이를 반영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항을 고쳤다.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가 자사에서 직접 발권 취소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여행사를 통한 발권 취소도 24시간 이내에는 무료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사, 항공사, 시스템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이행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결정했다. **박소영 기자**